



6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 흥국생명 김연경이 강타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염주체육관 18~19일 한·일 여자프로배구 '왕중왕전'

탑매치 열기... 팬들은 즐거워

한국대표-흥국생명·GS칼텍스

일본대표-도레이·히사미츠

한·일 여자프로배구 최강을 가리는 흥국금융그룹배 한·일 V리그 탑매치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18일 광주염주종합체육관에서 이틀간 열릴 이번 대회에 한국 대표팀은 이미 결정된 챔피언결정전 진출팀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이 개막일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본대표팀은 최근 끝난 정규리그에서 1위 도레이 에로우즈와 2위 히사미츠 스프링스팀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회에는 양국 선수 인원만 120명, 일본측 관광객, 응원단, 관중들이 참여해 총 1만5천여명이 경기를 관람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방식은 자국팀 간 경기없이 2경기씩 치러지며 대회 우승팀엔 2만 달러, 준우승팀엔 1만달러 그리고 MVP에겐 3천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4개팀은 양국 정상급 선수들이 포진, 국가대표팀 대결 못지않은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규리그 1위 GS칼텍스는 리그 성적 19승9패로 명실상부한 한국 최강팀.

GS칼텍스가 국내 최정상의 반열에 오른것은 용병 데라크루즈(레프트·188cm·71kg)와 정대영(센터·183cm·71kg)이 있어 가능했다. 데라크루즈는 공격 9개 부문 중 6개 부문에 상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핵심 공격수이다. 특히 오픈 공격(성공률 47.3%)·후위공격(성공률 43.54%)·퀵오픈(성공률 65.36%)·공격종합(49.25%) 등 4개 부문에서 단



〈흥국생명 한송이〉 〈흥국생명 카리나〉 〈GS칼텍스 정대영〉 〈GS칼텍스 데라크루즈〉

연 선두에 올라있다.

팀 만연시 정대영도 공·수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이동공격(성공률 45.38%) 2위, 속공(45.05%) 3위에 오른 정대영은 블로킹(성공률 0.685) 2위로 공격과 수비에서 고른 기량을 펼치고 있는 대들보이다.

정규리그 3위로 플레이오프에서 KT&G를 꺾고 챔피언전에 오른 흥국생명도 16승12패 승률 0.57의 기록을 지닌 저력의 팀.

특히 팀 공격종합(성공률 41.03%), 속공(성공률 46.70%), 퀵오픈(성공률 49.83%), 시간차공격(성공률 46.08%)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흥국생명의 주전은 단연 김연경(레프트·192cm·73kg)이다. 김연경의 트레이드 마크는 서브공격. 정규리그 중 43개의 서브포인트를 올려 GS칼텍스 데라크루즈 보다 6개 앞서며 이 부문 선두에 랭크됐다. 또한 시간차공격(성공률 57.74%) 2위, 공격종합(성공률 47.09%) 2위, 퀵오픈(성공률 54.36%) 3위, 득점(670점) 4위, 오픈공격(성공률 39.26%) 4위 등 화려한 기량을 선보였다.

김연경과 함께 흥국생명의 공격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선수는 바로 용병 카리나(190cm). 카리나는

오픈공격(성공률 45.27%) 2위, 후위공격(성공률 37.14%) 4위로 코트 전후에서 전천후 공격을 펼쳐 온 멀티플레이어이다.

한편 일본 도레이 에로우즈팀은 일본 여자프로배구 2007-2008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팀으로 지난 2000년 프로팀으로 창단했다. 그동안 중하위권을 맴돌던 에로우즈팀은 지난 1964년 아마추어팀으로 출발해 1965년 제14회 전일본도시대항 및 제4회 NHK배 우승을 차지하는 등 1996년까지 아마추어에서 모두 21번 우승을 차지했다. 칸노 코이치로 감독 등 코치진 3명과 아키 시바타 등 18명의 선수 등이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히사미츠 스프링스는 1948년 창단된 역사 깊은 배구팀으로 1994년 일본 여자프로배구 리그 발족 시 현재 명칭으로 바꿨다. 2007-2008 시즌에는 3위에 그쳤으나, 매년 우승과 준우승 등 상위권을 유지한 강팀이며, 모두 8차례 우승했다. 마나베 마사오 시 감독 등 5명의 코치진과 20명의 선수 등으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KBS 1TV와 KBS N TV에서 중계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김연경 강타...챔프전 승부 원점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GS칼텍스와 1승1패



환골탈태한 흥국생명이 챔피언결정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흥국생명은 6일 인천 도원시립체육관에서 계속된 NH 농협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2차전에서 새로운 삼각편대의 맹활약에 힘입어 GS칼텍스를 3-2(25-15 22-25 17-25 25-20 15-13)로 어렵게 따돌리고 1승1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적지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흥국생명은 9일부터 홈 전인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3,4차전을 부

담없이 준비하게 됐다. 4일 1차전에서 GS칼텍스의 강서브에 흔들려 0-3으로 무릎을 꿇었던 흥국생명은 이를 만에 전혀 달라진 팀으로 돌아왔다.

어창선 흥국생명 감독대행은 손가락 부상으로 빠진 황연주를 대신해 한송이를 김연경, 카리나와 함께 새로운 삼각편대로 기용했고 높이의 우세를 앞세워 데라크루즈 혼자 분전한 GS칼텍스를 제압했다.

나란히 192cm인 카리나(35점)와 김연경(23점)은 58점을 합작했고 186cm인 한송이도 14점을 보태 혼자 32점을 퍼부은 데라크루즈를 압도했다.

특히 시즌 중 총수령 수술을 하는 등 우려곡절이

많았던 푸에르토리코 출신 외국인 선수 카리나는 이날 양팀 합쳐 최다 득점을 뽑아냄과 동시에 상대 주포인 데라크루즈의 공격을 잇달아 차단해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활약했다. 블로킹 득점은 5개나 됐다.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였다.

흥국생명은 1세트 상대 리시브가 흔들린 틈을 타 주도권을 잡았고 카리나가 데라크루즈의 공격을 두 차례나 가로막기로 잡아내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문명의 5세트에서 양팀은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였고 흥국생명은 13-12에서 카리나가 다시 데라크루즈의 결정적인 공격을 블로킹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14-13에서 왼쪽에서 수구진 한송이는 GS칼텍스의 3인 블로커를 뚫고 터치 아웃을 성공,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구름슨, KIA 첫승 쏜다



“구름슨의 어깨가 KIA의 4월을 예고한다.”

KIA 타이거즈가 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고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KIA는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개막 2연전에서 패만 안고 돌아왔기 때문에 승리가 절실하다.

조범현 감독은 홈 개막전 선발로 용병 구름슨을 낙점했다. 구름슨의 한국 무대 데뷔전 상대는 '타이거즈 킬러' 김광현이다.

컨디션 난조로 개막전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SK의 에이스 김광현은 가장 편한 팀인 KIA를 2009 시즌 첫 상대로 삼았다. 지난해 다승왕(16승) 김광현은 2008시즌 KIA전에 5번 등판해 패 없이 4승만을 챙겼다. 평균자책점은 0.53에 불과했다.

김광현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KIA에 유독 강한데다, KIA 타선이 고질적인 조직력 문제를 노출하며 시즌 시작부터 무기력증에 빠진 만

림 힘든 승부가 예상된다.

홈 개막전은 KIA의 4월은 물론 올 시즌 마지막 행운지를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다.

지난해 3연패로 시즌을 시작한 KIA는 초반 분위기가 싸움에서 밀리며 4월까지 8승11패의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이후 7월 반격을 펼치며 뒤늦게 4강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4월 최악의 승률에 발목이 잡히면서 '가을잔치'에 초대 받지 못했다.

KIA는 두산과의 개막 2연전에 이어 SK, 삼성, 롯데 등 지난해 4강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승리를 통한 '분위기 반전'이 시급하다. '김광현 징크스' 탈출도 KIA의 장기적인 행보에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홈 개막전의 키는 구름슨 그리고 이용규와 최희섭이 쥐고 있다.

마무리 한기주의 컨디션이 100%는 아니지만 손영민, 김영수, 유동훈, 로페즈, 이범석 등으로 구성된 허리진이 탄탄하다. 구름슨이 어느 시점에서 마운드를 넘기느냐에 따라서 초반 경기 분위기가 달

오늘 SK와 광주 홈 개막전 주말 삼성전 불펜대결 관심

라질 전망이다.

개막 2연전에서 1번과 4번을 맡았던 이용규와 최희섭의 움직임도 타선의 흐름을 좌우한다.

두 경기에서 0.125의 타율에 그쳤던 테일러 세터 이용규는 경기의 흐름을 끊는 견제사와 수비로 자존심을 구겼다. '빅쇼이' 최희섭도 5일 두산전에서 3연타석 삼진을 당하는 등 2경기 타율이 0.143에 머물고 있다.

반면 KIA의 첫 상대 두산은 2도루 2득점을 올린 1번 이종욱의 발과 0.500의 타율을 올린 4번 김동주의 묵직한 방망이를 앞세워 2연승을 달렸다.

SK와의 3연전에 KIA는 구름슨에 이어 서재용과 곽정철을 마운드에 대기시키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에이스 윤석민이 분위기 수습을 위해 한 발 먼저 나설 수도 있다.

주말에는 치열한 '불펜대결'이 기다리고 있다. KIA는 금요일인 10일부터 불펜진이 탄탄한 삼성과 주말 홈 3연전을 갖고 승수쌓기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